



국민의힘 김해시장 예비후보 4인, 당협위원장 불출마 요구

송고시간 | 2022-03-23 11:42











이정훈 기자

국힘, 12년 만에 탈환 노려...민주당과 대선 득표율 '팽팽'



기자회견 하는 황전원·박병영 국민의힘 김해시장 예비후보

(김해=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김해시장 선거 예비후보 4명 중 황전원 박병영 예비후보 2명이 23일 김해시청에서 홍태용 김해갑 당협위 원장, 김성우 김해을 당협위원장에게 지방선거 불출마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3.23 seaman@yna.co.kr

(김해=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김해시장 국민의힘 예비후보 4명이 현직 당협위원장 2명을 향해 김해시장 선거 불출마를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국민의힘 김해시장 선거 예비후보 4명 중 박병영 황전원 예비후보 2명은 23일 김해시청에서 김해시장 선거 출마 가능 성이 있는 홍태용 김해갑 당협위원장, 김성우 김해을 당협위원장에게 "지방선거를 지휘하는 등 당협위원장 역할에만 충실해 달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두 사람은 박영진 박동진 예비후보는 다른 일정이 있어 회견에 불참했지만, 회견 내용에는 전적으로 동의했다고 전했



김해시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2개(갑·을)다.

지역구 2석 모두 민주당이어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원외다.

예비후보 2인은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이 12년 만에 김해 시장 직을 탈환할 좋은 기회다"며 "두 당협위원장은 선수로 뛰는 대신, 중심을 잡고 시장 후보를 공정하게 뽑는 데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핫뉴스 →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 험 또 불합격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등...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한국 유튜버,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 국경 넘었다 ...



이들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대등해졌다"며 당협위원장 2명은 시·도의원 공천과 선대위 구성 등 당협위원장으로서 역할에만 충실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는 당협위원장 지방선거 출마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당협위원장을 사퇴하면 출마가 가능하다.



김해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승리 여세를 몰아 12년 만에 김해시장직 탈환을 노린다.

과거 김해는 경남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보수정당 지지세가 강했다.

1995년 6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2006년 5월 제4회 지방선거까지 보수정당인 민자당·한나라당(현 국민의힘) 후보가 4번 연속 시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고향인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로 돌아온 2008년 이후부터 표심이 진보성 향으로 바뀌었다.

2010년 6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사상 처음으로 민주당 김맹곤 후보가 김해시청에 입성했다.

이후 2014년 6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6년 재·보궐선거,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4년 연속 민주당이 시장직을 차지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이 49.33%를 얻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46.24%)보다 3.09%를 더 얻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표(2.64%)를 합치면 보수·진보 표심이 팽팽하다.

seam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3/23 11:42 송고

#김해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싱'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 02:22

[영상] 입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누가 학대했나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에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된 컨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오늘 거리두기 해제 발표, 2년 1개월만 종료...마스 크는 그대로

尹당선인·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 어"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화...美와 더 강력한 동맹"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 련과목 2개 수강"

댓글 많은 뉴스

<mark>]</mark> 김건희여사 팬카떼,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 ⓒ 141 ^{챨에 고발}

2 '유퀴즈' 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 63 ' 만 맞아'(종합)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염색...조기등판론 속 활동 ☞ 55 재개 예열?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 ◎ 39 회예정"

뭐하고 놀까? ## 👺 →



















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 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

테마별뉴스 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마이더스

광고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톱뉴스/사설 이시각.헤드라인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뉴스+

모바일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K-ODYSSEY) 채용 IR클럽 #홍

계약사/제휴문의

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02-398-3000) 사이트맵

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 등록번호 문화,나00009 | 등록일자 1980.12.29 | 발행일자 1980.12.29 | Tel. 02-398-3114

(C) 대표이사] 성기홍 [편집인] 조채희